

□ 정부시책 □

## 21세기 주도 新産業 육성 추진

산업자원부는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 부응하는 새로운 성장 주도산업을 창출·육성하고 산업구조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해 '신산업 발전비전 및 육성방안'을 수립·시행키로 했다.

산자부에 따르면 최근 우리경제는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이후 구조조정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나 미래에 대한 비전제시가 병행되지 않을 경우 발전방향을 상실할 우려가 있는데다 지식·정보사회에 부응하는 새로운 성장주도산업을 창출, 산업구조 고도화를 촉진하고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해 대규모 실업문제를 해소할 필요성이 핵심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따라 산자부는 정보통신·메카트로닉스·항공·우주·신소재·생물산업·영상산업·디자인·패션·경영컨설팅을 중심으로 영국·미국·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신산업 분야를 발굴하는 한편 정책을 강구키로 했다.

이를 위해 산자부는 우선 오는 5-6월중 분야별 전문가와 공동으로 신산업 분야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해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

하고 7월중 신산업발전위원회를 개최해 신산업 발전비전 추진계획을 확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11월에는 분야별 작업결과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12월에 신산업발전위원회를 개최, 신산업 발전비전 및 육성방안을 최종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신산업발전위원회는 산자부차관을 위원장으로 재경부·정통부·문화관광부·산자부 등 관련부처 1급 공무원과 산업연구원 등 연구기관 부원장, 산업계·학계 전문가로 구성되며 신산업 분야별 발전비전 및 산업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액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원활한 자금·인력·입지공급 등 신산업 창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제도개혁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산자부는 신산업 창출 촉진 및 육성시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해 현행 공업발전법을 가칭 '신산업구조고도화법'으로 전면 개편해 신산업정책 관련제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다음은 주요국의 신산업 창출 및 육성계획이다.

**일본**: 자동차·전자·기계 등 기존 주력산

업의 성장한계와 산업공동화에 대응해 '96년 12월 각의에서 신규 산업창출을 위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97년 5월 신규산업 분야별 세부추진계획을 확정·시행키로 했다.

신규 산업분야는 의료·복지, 생활문화, 정보통신, 신제조기술, 유통물류, 환경, 비즈니스 지원, 해양 등 15개 분야로 이들 분야의 시장규모와 고용 규모는 향후 15년간 급속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15개 신규 산업분야의 시장규모는 지난 '95년 274조엔이었으나 2010년에는 664조엔으로 2.5배 확대되며 고용규모는 '95년의 1,066명에서 2010년에는 1,827만명으로 늘어 761만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할 전망이다.

일본정부는 이를 위해 신규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해 자금시장 정비를 위한 장외시장·미상장·미등록 주식시장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와함께 신산업창출 기반조성을 위해 네트워크 인프라 정비, 전자상거래의 추진, 행정·교육·의료·교통 등 공공분야의 응용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 신기술의 개발·상업화를 위해 에너지부·국방부산하 연구소·NASA 예산의 10-20% 이상을 산업계와의 연구개발 협력에 사용토록 조치하고 있다.

이와함께 연구개발에 대한 조세감면 기간의 영구적 연장 계획을 강구하고 있으며 벤처자본, 창업투자 및 기타 중소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법안을 입법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정보기반구조(NII)의 구축을 위해 전국의 모든 가정·기업·대학 등을 상호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2010-2015년까지 광섬유로 대체, 초고속·대용량·쌍방향의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미국 정부는 지난 '88년 기술경쟁력법에 의해 민간부문이 수행하는 경쟁전 단계의 기반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개인 사업자의 경우 3년간 연 200만달러까지 지원하며 컨소시엄의 경우 5년간 지원하고 있다.

지원자금 규모는 '93년 9,400만달러에서 '97년에는 2억2,500만달러로 확대됐다.

**말레이시아 :** MSC(Multimedia Super Corridor) 계획을 수립,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와 신국제공항 사이에 아시아의 실리콘 벨리 건설을 서두르고 있다.

이를 위해 말레이시아는 국내의 지적인력의 자유로운 고용허용, 내국인의 지분참여 의무 면제, 10년간 소득세 면제 또는 투자상각 허용, 멀티미디어 장비에 대한 각종 부담금 및 관세 면제, 각종 인허가의 신속한 처리 등의 혜택을 추진중이다.

## 租稅減免 대상 高度기술 범위 擴大

외국인 투자시 소득세·법인세·취득세 등 각종 조세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조세감면 대상 고도기술사업 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특히 정밀기계 및 신공정, 신물질 및 생물산업, 환경 및 에너지, 건설 및 사회기반시설 등 미래 유망산업과 산업계의 수요가 많은 부문에서의 고도기술사업 범위가 크게 늘어나고 산업지원 서비스가 처음으로 포함된다.

또 기술도입시 기술도입 대가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를 5년간 면제해 주는 조세면제대상 고도기술 범위도 크게 늘어난다.

정부는 산업자원부가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감면대상 고도기술사업범위' 조정안에 대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마친 뒤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산업자원부가 마련한 조세감면대상 고도기술사업 범위 조정안에 따르면 외국인투자 고도기술사업 범위 조정안에 따르면 외국인투자 고도기술사업 범위의 경우 현행 265개 사업범위에서 26개를 삭제하고 172개를 신설해 411개로 확대 조정했다.

이와 함께 32개 기술사업은 그 범위를 확대 조정했고 11개 기술사업은 규격을 상향 조정했다.

업종별로는 전자·정보 및 전기업종이 현행 79개에서 90개로, 정밀기계·신공정은 36개에서 65개로, 재료·소재는 38개에서 46개로, 신물질·생물산업은 21개에서 33개로, 광학·의료기기는 14개에서 17개로 각각 확대된다.

또 항공·수송 업종이 35개에서 36개로, 환경·에너지가 32개에서 60개로, 건설·사회기반시설이 10개에서 54개로 각각 확대되고 산업지원서비스 업종에서 10개 기술사업이 신설된다.

기술도입과 관련한 고도기술 범위도 현행 287개에서 463개로 크게 확대된다.

현행 287개 중 21개가 삭제되고 197개가 신설되며 44개 기술은 범위가 일부 추가되고 12개는 일부 규격이 상향 조정된다.

업종별로는 전자·정보 및 전기 업종이 75개에서 91개로, 정밀기계·신공정이 26개에서 68개로, 재료·소재가 54개에서 67개로, 신물질·생물산업이 25개에서 42개로 각각 확대된다.

이와 함께 광학·의료기기가 14개에서 17개로, 항공·수송이 38개에서 49개로, 환경·에너지가 44개에서 75개로, 건설·사회기반시설이 11개에서 54개로 각각 확대된다.

외국인 투자시 고도기술사업은 법인세·소득

세·취득세·재산세 등이 처음 7년간은 수입시 관세·특소세·부가세 등이 100% 면 100%, 이후 3년간은 50% 감면되며 자본세 제된다.

## 영종도 신공항, 전력시설 발주 본격화

새로 지어지는 인천국제공항의 주요전력시설사업이 올해 총 2천7백2억6천만원 규모가 발주된다. 신공항 건설공단에 따르면 올해 공사 부분 10건, 제조구매 2건, 감리 3건등 총 15건 2천7백2억6천만원 규모의 전력시설사업이 발주된다.

### 《 영종도 신공항 전력시설사업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사 업 명	사 업 비	발주 추진일정	사 업 기 간	비 고
공 사	수변전시설사업	42,600	97. 6 - 98. 2	98. 4 - 2000. 3	계약완료
	공동구 및 지하철도 전기설비공사	17,600	97. 12 - 98. 4	98. 5 - 2000. 5	입찰완료
	154KV 수전CABLE 제작, 설치공사	29,489	98. 4 - 98. 6	98. 7 - 2000. 1	
	22.9KV 배전CABLE 시설공사	9,113	98. 7 - 98. 9	99. 7 - 2000. 1	
	옥외조명 시설공사	19,282	98. 6 - 98. 8	98. 9 - 2000. 10	
	항공등화설비 공급 및 설치 공사	44,534	96. 9 - 97. 12	97. 12 - 2000. 6	계약완료
	AIRSIDE 전기설비공사	15,286	98. 2 - 98. 5	98. 6 - 2000. 6	
	여객터미널 전기공사	26,176	98. 6 - 98. 9	98. 10 - 2000. 6	
	부대건물 전기공사(I)	19,126	98. 1 - 98. 2	98. 3 - 2000. 4	
	부대건물 전기공사(II)	7,998	98. 12 - 99. 2	99. 3 - 2000. 5	
제조 구매	22.9KV 배전CABLE 구매사업	17,130	98. 3 - 98. 7	98. 8 - 99. 11	
	배전반 제조·구매사업	7,567	98. 7 - 98. 10	98. 11 - 2000. 3	
감리	수배전시설사업 감리	5,037	97. 11 - 98. 4	98. 5 - 2000. 10	계약완료
	항공등화시설 설치공사 감리	2,798	98. 2 - 98. 5	98. 5 - 2000. 6	입찰완료
	여객터미널 및 부대건물 전기공사 감리	6,524	97. 12 - 98. 2	98. 3 - 2000. 6	
총 계 : 15건		270,260			

공사부문중 4백26억원 규모의 수변전시 설사업과 항공 등화설비 공급 및 설치공사(4백45억3천4백만원 규모)는 이미 계약이 완료됐으며 공동구 및 지하차도 전기설비공사(1백76억원 규모)는 입찰이 완료됐고 154Kv 수전케이블 제작 설치공사(2백94억8천9백만원)와 22.9Kv 배전케이블 시설공사(91억1천3백만원), 옥외조명 시설공사(1백92억8천2백만원), AIRSIDE 전기설비공사

(1백52억8천6백만원), 여객터미널 전기공사(2백61억7천6백만원), 부대건물 전기공사 I(1백91억2천6백만원), 부대건물 전기공사 II(79억9천8백만원)가 올해 발주되는데 부대건물 전기공사 II의 경우는 내년 2월까지 발주가 추진된다.

제조구매부문은 22.9Kv 배전케이블 구매사업(1백71억3천만원), 배전반 제조 구매사업(75억6천7백만원)이 각가 발주된다.

### 수입선 다변화 품목 수입승인 요령 개정

※ 산업자원부는 수출입 업체의 애로 해소를 위해 수입선 다변화 품목 중 “국내 제작용 견본품 수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입승인 요령을 개정 시행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처리기간	신청대상자	처 리 기 준
1. 수입승인신청서 3부 2. 물품매도확약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개발계획서 5. 카다로그 또는 도면	1일	제조업체	국내 개발에 필요한 최소량